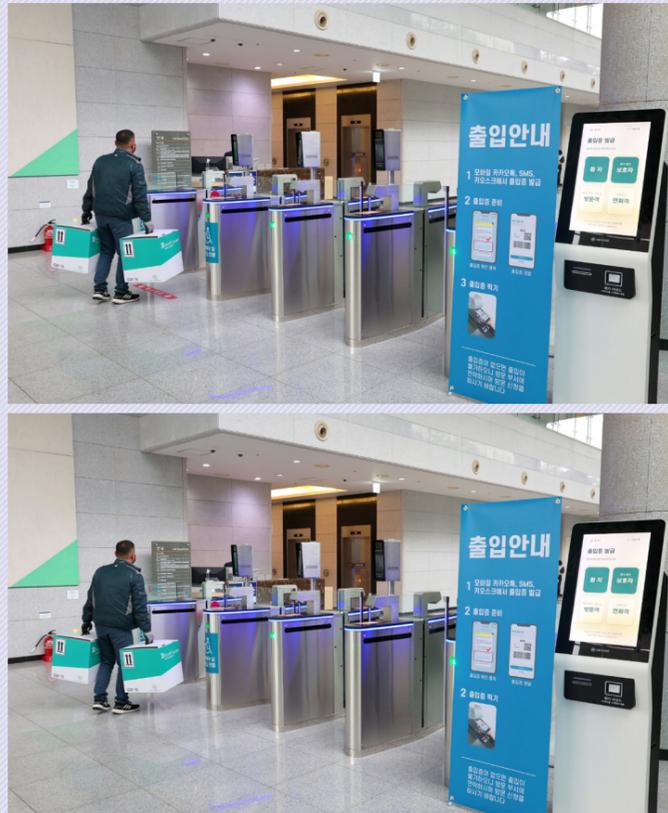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스피드게이트가 최근 융합연구관과 교육연구관에도 설치됐다.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출입 시 사원증 또는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진은 융합연구관 정문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의 모습.

지나호 정답



제715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사서's PICK - 나에게 건네는 다정'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심장병원간호팀 이주경 주임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3년 2월 1일(목)
 발표 제719호(2024년 2월 15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김은경(중환자간호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태오(심장내과)
 전창우(시설팀)
 정선영(어린이병원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김희경(외래간호팀 외래8 유닛)
 양해두(영상의학팀)

캔버스 북커버
 김정목(교육수련실)
 문현욱(심장병원간호팀)
 박나래(수술간호팀)
 박양재(심장병원간호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강민숙(내과간호1팀)
 강신영(외래간호팀)
 박윤형(수술간호팀)
 조홍주(중앙공급팀)
 최상모(영상의학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17 2024. 1. 15



미래성장 준비하는 민병철 연수기금 장학생들

민병철 연수기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1월 5일 동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병철 연수기금

은 민병철 전 병원장이 간호, 보건, 관리직 등 일반직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0년 사재를 기부해 만든 기금으로, 아산재단이 180억 원을 보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해외연수 부문 233명 ▲국제전문자격 취득 부문 70명 ▲임상전문간호대학원 진학 부문 237명 ▲의료관리자 과정 부문 548명 등 총 1,18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장학생들은 각자 소감을 밝히며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그 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하며 우리 병원의 미래 성장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사진은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6면)

02 NEWS 두 번째 심장 선물받은 어머니와 아들

08 AMC 리얼스토리 마흔두 살의 오늘

14 신년특집 새해, 나에게 쓰는 편지

22 감사우체통 "서울아산병원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두 번째 심장 선물받은 어머니와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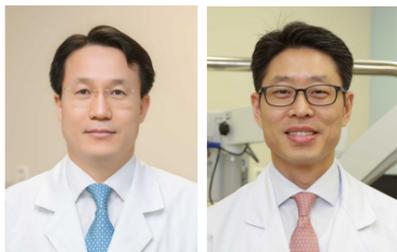


좌심실보조장치 삽입술을 받은 환자(가운데)와 의료진이 성공적인 치료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장 근육 이상으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확장성 심장 병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우리 병원에서 각각 두 번째 심장을 선물 받았다. 어머니는 2009년 심장이식을 받았고 아들은 지난해 말 인공심장을 이식 받아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우리 병원 심부전·심장이식센터는 지난해 11월 말 확장성 심근 병증을 앓던 이 모 씨에게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좌심실보조

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엘바드) 삽입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좌심실보조장치 삽입술 100례를 달성했다. 이 씨의 어머니 또한 같은 질환을 앓아 15년 전 우리 병원에서 심장이식을 받았다. 우리 병원은 2015년 6월 3세대 좌심실보조장치를 국내에서 처음 시행했고 작년 한 해에만 26건을 진행했다. 좌심실보조장치를 삽입한 환자의 1년 생존율은 전 세계적으로 80% 정도인데 우리 병원은 82.6%로, 심장이식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 좌심실보조장치를 삽입한 환자의 평균 나이는 58.7세였으며 최연소 17세부터 최고령 7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해 왔다. 그 중 4명은 좌심실보조장치를 삽입한 후 건강하게 대기하다가 심장이식을 받아 새로운 심장을 얻었다. 김민석 심부전·심장이식센터장은 “높은 심장이식 수술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부족해 이식 대기 중 사망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 생존율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좌심실보조장치 삽입술도 적극 시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공와우 이식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일반인과 유사



박흥주 교수 강우석 교수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던 아동도 인공와우 이식을 받으면 성인이 됐을 때 교육과 직업 수준이 비난청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비인후과 박흥주·강우석 교수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은 양측 청각장애 아동 7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학 및 취업 비율을 조사했다. 수술 당시 연령은 평균 3.9세였으며 현재 연령은 평균 22.4세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대상자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와 동등한 교육 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확인됐다. 대학 진학률은 74.6%로 일반인(70.4%, 2020년 한국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41명 중 26명(62%)은 취업을 해서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원생의 고용률이 65.1%(2020년 12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인 것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취업한 26명 중 21명은 직업 훈련 기관이나 장애인 특별 채용 정책을 통해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공식 학회지 「이비인후과·두경부수술 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4년 시무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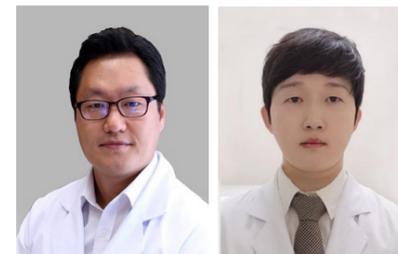


2024년 시무식에서 박승일 병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년 시무식이 1월 2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시무식에서는 지난 한 해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한 뒤 박승일 병원장의 신년사와 박성욱 의료원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박승일 병원장은 신년사에서 “35년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더 큰 힘으로 결집하는 저력을

보여 왔고, 그런 상황에서도 성장을 계속해 왔다. 앞으로 우리가 써 나갈 미래도 더 빛나는 성장과 발전의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료 수준을 강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차분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박성욱 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병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중증 환자 치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환자 우선의 가치에는 막중한 책임과 함께 따뜻한 진심을 나누며 느끼는 보람과 성취가 있다. 모든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병원 문화를 만들어 갈 때 환자들도 삶의 희망과 일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로상 시상과 사령장 수여도 진행됐다. 학술연구 분야의 업적으로 우리 병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정진건 강의학과 정석훈 교수를 비롯한 111명이 의사직 공로상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 4면)

라만분광 기반 방광암 진단 기술 개발



김준기 부교수 이상화 박사

방광암은 전 세계 암 진단의 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흔한 암이다. 종양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므로 조기 진단과 종양 평가가 중요하다. 최근 표면증강 라만분광(SERS)과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해 소변에서 방광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융합의학과 김준기 부교수, 의공학연구소 이상화 박사팀은 액체 생검을 할 때 나노미터 단위의 바이오마커를 표적으로 삼으면 적은 샘플에서도 타겟으로 하는 바이오마커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나노미터 마커를 필터링하면서 나노 바이오마커의 라만신호만 선택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센싱칩을 활용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가 마시는 물에 발암물질인 ‘BBN’을 공급해 방광에 종양 발생을 유도한 뒤, 직경 1mm의 미세 내시경을 이용해 종양 발생 과정을 최소 침습적으로 추적 관찰했다. 내시경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동물의 종양 초기 및 중증 단계의 소변을 확보한 뒤 이를 센싱칩 위에 올려 라만신호를 획득했다. 진단 성능을 분석한 결과 라만 스펙트럼의 데이터 분포가 ▲암이 없는 군 ▲초기 암 ▲폴립 형태의 암군으로 잘 분리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판별분석 결과 각 군의 판별 정확도가 9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생명의학 분야 저명 학술지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최신호에 게재됐다.

동 정

코로나19 위기극복 유공 표창 수상



우리 병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역사박물관 아추개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전략 포럼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우리 병원은 국내 민간병원 중 처음으로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인 감염관리센터(CIC)를 개소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전담 운영하며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관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제환 진료부원장(사진 오른쪽)이 박유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으로 부터 상을 받았다.

임영석 교수 울산의대 학장 선출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가 울산대 의과대학 제 19대 학장에 선출됐다. 투표는 1월 2일 진행됐으며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임 교수는 2003년 내과학교실 교수로 부임했으며 ▲임상시험센터소장(2015.4~2019.6) ▲울산의대 연구부학장(2018.3~2020.2) 등을 역임했다. 임 교수는 “대학 안팎으로 큰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우리 울산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의 미래 30년 동반 발전을 위한 초

석을 만들고 국내 최고의 의대로 도약하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제도 이행 우수병원 선정

우리 병원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의료폐기물 제도 이행 우수병원'에 최근 선정됐다. 우리 병원은 의료폐기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자 비콘태그 설치제도와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시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신제관 유닛 매니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보안관리팀 신제관 유닛 매니저가 지난해 12월 29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신 유닛 매니저는 지난 2년간 우리 병원의 재난 관리 및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제도 정착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인 사

보직임명

| | | | |
|-----------------------|----|-----|--------------|
| 진단검사의학과 | 교수 | 전사일 | 임 : 진단검사의학과장 |
| - 이상 1명, 2024. 1. 1부. | | | |

2023년 의사직 공로상 / 고객칭찬-제안대상

<의사직 공로상>

교수 가정의학과 선우성 / 건강의학과 김홍규 / 내분비내과 김민선, 정창희 / 마취통증의학과 최병문, 황규삼 / 병리과 조경자 / 비뇨의학과 박형근, 송채린, 안한중, 유달산, 정인갑, 홍준혁 / 성형외과 최종우 / 소아청소년과 장원경 / 소화기내과 박도현, 임영석, 정기욱 /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천수, 윤태진 / 안과 김재용, 사호석 / 영상의학과 권동일, 김소연, 김학희, 김호성, 서준범, 양동현, 이승수 / 융합의학과 김남국 /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정석훈 / 중양내과 강윤구, 박숙련, 이대호, 정경해 / 치과 김수환 / 호흡기내과 고윤석

부교수 건강의학과 김은희 /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최성수 / 성형외과 서현석, 한현호 / 신경과 김범준 / 안과 이훈 / 영상의학과 최상현 / 정형외과 김완림 / 중양내과 김선영, 윤덕현

조교수 간식간담도외과 김상훈 / 류마티스내과 안수민 / 마취통증의학과 권혜미, 김두환, 김하정, 이상욱 / 비뇨의학과 박주현, 서준교, 임범진 / 소화기내과 최원목, 최종기 /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홍래 / 알레르기내과 이지향 / 영상의학과 구현정, 박계진, 송윤선, 윤희망 / 정신건강의학과 박형

근 / 정형외과 박세한 / 중양내과 김형돈, 서세영 / 진단검사의학과 민성희, 추대현 / 피부과 정준민 / 혈액내과 최은지 / 호흡기내과 지원준

임상전임강사 마취통증의학과 김연주 / 산부인과 남소현 / 소화기내과 노진희, 조성현 / 신경과 조성양

진료전임강사 소화기내과 김유리

촉탁의사 국제진료센터 이희진

임상강사 내분비내과 고상혁, 김채아, 유정민 / 마취통증의학과 장하영 / 비뇨의학과 이현영 / 산부인과 정재이, 최혜연 / 성형외과 조정목 / 소화기내과 박강희, 백지은, 양지원, 이운찬, 이호승, 홍혜연 /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시아 / 중양내과 신여경, 이소훈 / 혈관외과 이상아

레지던트 마취통증의학과 김지영 / 병리과 전지현 / 비뇨의학과 남경현, 조재영 / 진단검사의학과 최유나 / 치과 오지수, 이범찬 / 피부과 김경훈, 전수현 / 핵의학과 류정률, 윤소윤

<고객칭찬대상>

외과간호2팀 이종원

<제안대상>

원무팀 김정아

<2023년 소속 기준, 가나다 순>

이달의 후원자

| | | | |
|---------------|--------------|---------|----------------|
| (사)호프월드와이드코리아 | 2,300,000원 | 김재일 | 5,300,000원 |
| (재)구원장학재단 | 60,000,000원 | 김진석 | 1,000,000원 |
| (주)세룬인터내셔널 | 10,000,000원 | 김태리 | 100,000원 |
| (주)에스엠아이엔지 | 50,000,000원 | 김태연 | 1,000,000원 |
| (주)원지엔제이드 | 500,000원 | 김하나 | 1,000,000원 |
| (주)지아이티 | 10,000,000원 | 김형곤 | 1,000,000원 |
| (주)퍼스트룩 | 30,000,000원 | 김형일 | 10,000,000원 |
| (주)한준에프알 | 100,000,000원 | 김혜성 | 10,000,000원 |
| (주)행복한씨엠오 | 5,000,000원 | 김홍지 | 2,000,000원 |
| 누리온누리약국 | 1,000,000원 | 박진영 | 200,000,000원 |
| 동국산업(주) | 39,591,780원 | 박현욱 | 1,000,000원 |
| 모션크루 | 1,000,000원 | 박혜리 | 200,000원 |
| 보우코리아(주) | 100,000,000원 | 배현진 | 10,000,000원 |
| 삼정상사(주) | 5,000,000원 | 서승권 | 100,000원 |
| 삼정시계(주) | 5,000,000원 | 서영준 | 200,000원 |
| 서울아산병원 제2어린이집 | 3,155,000원 | 서준혁·이지희 | 1,000,000,000원 |
| 세종공업(주) | 100,000,000원 | 선성혜 | 1,000,000원 |
| 애경메디칼(주) | 100,000,000원 | 성백찬 | 1,000,000원 |
| 에이치셀퍼(주) | 50,000,000원 | 손예진 | 100,000,000원 |
| 에프엠가정의학과의원 | 10,000,000원 | 신민아 | 100,000,000원 |
| 여명철강(주) | 5,000,000원 | 안은경 | 2,000,000원 |
| 예수이름교회 | 1,000,000원 | 엄대열 | 30,000,000원 |
| 오렌지컴퓨터 | 1,766,782원 | 엄병윤 | 10,000,000원 |
| 오류 | 10,000,000원 | 오미연 | 1,000,000원 |
| 의약뉴스(주) | 1,000,000원 | 오희복 | 10,000,000원 |
| 컴퍼니온(주) | 100,000,000원 | 이 답 | 50,000,000원 |
| 크레이트지용재단 | 100,000,000원 | 이광수 | 30,000,000원 |
| 평택꽃동산교회 | 10,000,000원 | 이길숙 | 5,000,000원 |
| 하라요가 | 1,550,000원 | 이민경 | 1,000,000원 |
| 한국YPO | 20,000,000원 | 이삼수 | 1,000,000원 |
| 행복물산 | 1,000,000원 | 이승은 | 1,000,000원 |
| 현대머티리얼(주) | 10,000,000원 | 이재규 | 1,000,000원 |
| 현대비앤지스틸(주) | 10,000,000원 | 이찬열 | 500,000원 |
| 홍산천막사 | 500,000원 | 이효선 | 500,000원 |
| AK홀딩스(주) | 100,000,000원 | 임경덕 | 1,000,000원 |
| HD현대1%나눔재단 | 2,500,000원 | 임종욱 | 1,000,000원 |
| 고민시 | 10,000,000원 | 장현중 | 1,000,000원 |
| 고상결 | 10,000,000원 | 전민국 | 5,000,000원 |
| 고석태 | 10,000,000원 | 정유경 | 20,000,000원 |
| 곽민선 | 3,000,000원 | 정천용 | 100,000,000원 |
| 김경진 | 1,000,000원 | 조범근 | 1,000,000원 |
| 김대환 | 1,000,000원 | 조서연 | 300,000원 |
| 김민성 | 250,000원 | 조준범 | 1,000,000원 |
| 김은희 | 100,000원 | 주 현 | 10,000,000원 |
| 김응복 | 100,000원 | 최성욱 | 100,000원 |

| | |
|-----|--------------|
| 최승재 | 5,000,000원 |
| 최영철 | 500,000,000원 |
| 최유정 | 100,000원 |
| 최이솔 | 3,650,000원 |
| 최주원 | 1,000,000원 |
| 최혜진 | 1,000,000원 |
| 한연진 | 300,000원 |
| 함정우 | 20,000,000원 |
| 허 준 | 10,000,000원 |
| 황종숙 | 2,000,000원 |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단체·개인별 가나다 순

[Zoom in]

제2어린이집 시장놀이 수익금 기부



우리 병원 제2어린이집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아나바다 시장놀이' 수익금 3,155,000원을 최근 기부했다. 제2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원아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옷 등을 기부받은 뒤 물건이 필요한 원아들이 직접 구입하게 하는 체험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0월에 진행된 시장놀이 행사에는 원아와 학부모를 포함해 3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소아청소년 불우 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금영 대외협력팀장, 조영주 제2어린이집원장(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과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이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모아사랑 후원 현황

'모아사랑'은 직원들이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매달 자신의 급여 끝잔을 후원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병원 직원 2,482명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40,082,101원이 모아졌으며 이 중 1,040,803,197원이 사용됐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 대외협력팀 후원유닛 (원내 6207)

민병철 연수기금 장학생 36명 선발



1월 5일 열린 민병철 연수기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제환 진료부원장(연수기금 집행 실무위원장)이 P팀 김민경 대리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총 36명으로 ▲해외연수 부문 22명 ▲임상전문간호대학원 부문 9명 ▲국제전문자격·전문코치양성 부문 5명이다. 장학생들에게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 캐나다 토론토종합병원 등 해외 선진 병원에서의 연수 기회와 전문 자격증 취득, 전문간호대학원 진학 등의 학비 지원이 이뤄진다. 임상전문간호대학원 부문에 선발된 중환자간호팀 김수지 주임은 “민병철 연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과 우리 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철 연수기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1월 5일 동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 병원은 민병철 연수기금을 통해 일반직 직원들이 국내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경향을 해외 선진병원에서 연수하고 국내·외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제환 진료부원장(민병철 연수기금 집행 실무위원장)은 수여식에서 “연수지와 교육기관에서 보고 느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동료들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병원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상을 보는 더 큰 시야를 통해 우리 병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써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민병철 연수기금 장학생 명단

- 해외연수 부문** 내과간호팀 박수연, 한선미 / 내과간호2팀 정지선 / 방사선종양팀 염미숙 / 수술간호팀 빈두기, 심유현 / 심장병원간호팀 김보라 / 암병원간호팀 박진경, 유금신, 이은수 / 암병원간호2팀 배진실, 조순영 / 약제팀 한슬기 / 어린이병원간호팀 노민정 / 연구기획팀 이종협 / 영양팀 최숙영 / 외과간호1팀 손서영 / 임상연구보호센터 김지은 / 재활의학팀 정진원 / 특수검사팀 마지윤 / AGS팀 김시은 / P팀 김민경
 - 임상전문간호대학원 부문** 내과간호2팀 임하윤 / 암병원간호2팀 한예나 / 외과간호2팀 홍지애 / 외래간호팀 김유진 / 응급간호팀 고현아 / 중환자간호팀 김수지, 이루마
 - 국제자격증 부문** 임상시험센터 조수지 / 재활의학팀 최경웅
 - 전문코칭양성 부문** 간호교육행정팀 이하나, 한명희 / 중앙공급팀 김남숙
- (부서, 성명 가나다순)

스마트아카데미 리뉴얼 오픈



리뉴얼을 마친 스마트아카데미 화면

우리 병원의 교육 플랫폼 '스마트아카데미'가 리뉴얼을 마치고

1월 9일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나의 강의실' '직무역량' '자기개발' 등 사용 빈도가 높은 콘텐츠 및 웹페이지로의 접근성이 강화됐고 ▲AMC 기본의무과정 등 수강 중인 교육 콘텐츠 진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관심분야를 설정하면 개인별 맞춤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AMC 인기과정, 신규과정 등 종류별 추천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 이창근 아카데미소장은 “직원들이 스마트아카데미를 통해 효과적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디오 게임, 신약이 되다



강동화 R&D사업단장·신경과 교수

“환자분! 어드벤처 장르 게임으로 3개월치 처방해 드릴게요.” 인간은 놀이를 즐기는 존재라는 의미의 ‘호모 루덴스’라 불리기도 한다. 출퇴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비디오 게임에 빠져있는 지하철 안 풍경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런데 만약 이런 비디오 게임을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약’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차세대 신약으로 불리는 ‘디지털치료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 예방하는 게임이나 앱, VR 같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물론 모든 게임이나 앱이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식약처 인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치료제 대부분은 아직 기존 약물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혁신 신약급(First-in-Class) 디지털치료제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병원 연구자들은 디지털치료 신약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1유닛 연구자들의 첫 번째 목표는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제 개발이다. 시야장애란 후두엽 시각피질 손상으로 앞에 놓인 세상의 반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손을 말하는데 아직 효능이 입증된 치료법이 없다. 1유닛 연구자들은 시지각학습 이론과 IT 기술을 융합해 VR 기기로 환자 맞춤형 시지각 훈련을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했으며 식약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받았다. 이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연구 소개에 눈물을 글썽인 환자, 웹사이트에 게시된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본 후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 환자들도 상당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분야에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시지각학습 원리를 안과질환에 응용 및 확장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안과 이주용 교수, 이병주·문예지 조교수와 협업하여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와 소아사시의 입체시 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치료제를 개발해 임상시험 중이다. 또한 신경과 이재홍 교수, 임재성 부교수와 함께 몰입형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인지개선 효과를 검증 중에 있다.

디지털치료제는 의약품 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및 임상시험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게 개량신약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디지털 기술로 치료하는 병원 주도의 접근이므로 의료와 IT가 강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한다. 물론 디지털치료제가 임상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 모두에게 낯선 형태의 약이 출현한 것이니 말이다. 정부 부처와 병원, 의료진,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약 대신 게임을 처방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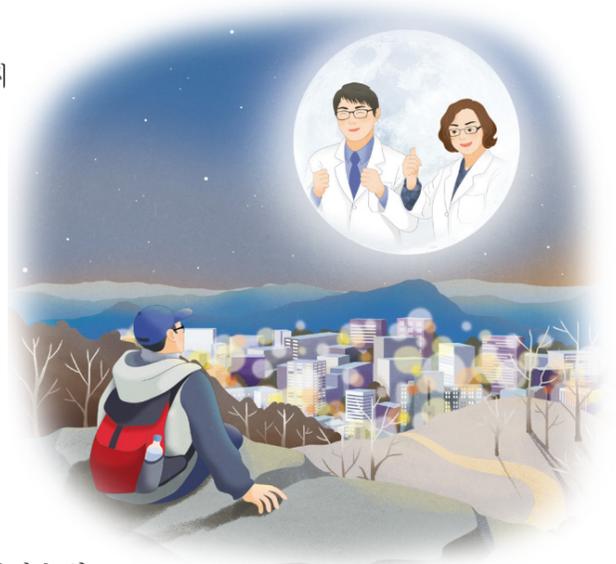
마흔두 살의 오늘

병국 씨는 창원 버스 터미널에서 오후 4시 20분 서울행 버스에 올라탄다. 병원 근처에도 착하니 이미 어둑해진 밤이다. 천근만근인 몸으로 가만히 거리를 서성인다. 여관비를 할 인받으려면 밤이 조금 더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이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여관방에 짐을 푼 병국 씨는 눈을 감고 내일 오전 진료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도한다. “가난하거나 아프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병국 씨는 7년째 암과 싸우고 있다.

서른다섯 살에 찾아온 위기 어느 날 가만있는데도 식은땀이 온몸을 흠뻑 적셨다. 그러곤 이내 쓰러졌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응급실로 향했다. 위 상부에 출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더 큰 병원으로 가보았다. 새로 만난 의료진은 위암 말기를 의심했다. 암에 걸릴 만한 나이란 없겠지만 병국 씨는 적어도 서른다섯 살에 닥칠 일은 아니라고 여겼다. 심지어 정보를 검색할수록 당황스러운 내용뿐이었다. 위암 말기는 5년 생존율이 2%에 불과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수술을 앞두고 급히 차를 팔고 일상을 정리했다. 차라리 가족이 없어 홀가분하면서도 혼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버겁게 느껴졌다. 위 전 절제 수술을 받았고 부신도 제거했다. 수술 후 위암 2기인 것을 확인했다. 병국 씨는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식단과 운동으로 회복에 힘썼다. 하지만 생전 겪어 본 적 없는 통증이 찾아오기도 했다. 새어 나온 혈액이 횡격막에 굳으면서 숨 쉴 때마다 죽음을 떠올릴 만큼 아팠다. 암은 전이되었고 항암 치료를 하면 2년쯤 더 살 수 있다고 했다. 병국 씨는 팽팽했던 삶의 긴장감이 맥없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리기도 하는 거라고.

“다른 병원 한 곳만 더” 소식을 들은 고모에게 연락이 왔다. “서울의 큰 병원에도 한 번은 가 봐야지.” 부모도 없이 젊은 나이에 암 투병하는 조카가 지레 삶을 포기할까 봐 불안해 하고 있었다. 고모가 예약해 준 서울아산병원에 가서 중앙내과 박숙련 교수를 만났다. 박 교수는 그동안의 CT 결과를 찬찬히 보았다. “치료 한번 해봅시다.” 죽음을 앞둔 경고 같은 건 없었다. 이어진 항암 치료 결과도 좋았다. “약이 아주 잘 들었네요. 당분간 관찰만 해볼까요?” 병국 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은 오래 가지 못했다. 또 재발한 것이다.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 효과도 있었지만 안심할 즈음 되자 입파선이 붓고 가슴에 암이 퍼지기 시작했다. 희망과 실망이 자주 반복되면서 모든 게 지긋지긋해졌다. “교수님, 이제는 그만하는 게 맞다 싶어요.” 무슨 소리예요? 병국 님은 약도 잘 듣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혼자만의 의지로는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박 교수의 이야기에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럼 저는 교수님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흉부외과 김형렬 교수를 만났다. “보통 재발하면 다발성 전이가 돼서 완치가 힘들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당황스러운 질문에 병국 씨는 잠시 머뭇했다.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소심한 목소리로 박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그렇죠, 그게 맞죠! 제가 수술 잘해보겠습니다.” 환자의 의지가 전부라는 듯 김 교수는 수술에 최선을 다했고 퇴원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다. 병국 씨가 고향의 병원에서 수술받을 때 느낀 불안이나 불안감은 전혀 없었다.



절박한 순간에 만난 도움

병원에 있으면 할 수 있다 싶다가도 작은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마음이 약해졌다. 줌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 기반을 다져야 할 나이에 투병 생활로 인한 상실감이 방안을 가득 채운 듯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을 받으면 일주일에 3만 원 정도만 식비로 쓰고 나머지는 병원비를 위해 모아두었다. 수술이 급히 잡히는 바람에 1인실에 배정됐을 때는 창밖의 한강을 볼 여유도 없었다. 입원비 걱정 때문이었다. 사회복지팀에서 찾아와 병원비 지원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 후 퇴원 수속을 밟을 때까지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나보다 더 아픈 환자도 많겠지...’ 병원비를 정산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사회복지팀에서 전화가 왔다. “병원비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이미 정산한 건 어서 환불받으세요!” 그 순간 병국 씨에게 서울아산병원의 모든 이가 영웅처럼 보였다. ‘다시 일하게 되면 병원에 꼭 기부해야지.’ 절박한 상황에서 알게 된 것이 있다. ‘작은 돈’이란 건 없다는 것. 1억이든 100만 원이든 누군가를 살리는 데 충분했다.

더 많은 ‘오늘’을 만나기 위해 위를 절제한 이후 식도와 소장이 연결되다 보니 밥을 많이 먹으면 소장이 부풀어 오르고 아팠다. 그래서 음식에 간도 하지 않고 철저히 소식했다. 그러나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즐겁게 일상을 지속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라면 반 개를 시작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되 1시간에 걸쳐 잘게 씹어 삼키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가서 ‘이것도 다 오르지 못하면 난 죽는다’하고 다부지게 걸어 올랐다. 회사에 다닐 때보다 체력은 오히려 좋아진 듯했다. 진료실에서 만난 박 교수의 표정도 밝다. “CT에서 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해도 되겠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힘들 때마다 교수님이 잡아주신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병국 씨는 위암을 발견하고 6번의 전이를 거쳐 7년째 살고 있다. 7번째 전이가 언제든 올 수 있다. 하지만 2년만 살 수 있었다던 인생이 5년이나 연장되었다. 서울아산병원에 온 까닭에, 병국 씨는 무사히 마흔두 살의 오늘을 만났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기꺼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재건 분야 세계 최고 병원에서 시야 넓히는 소중한 기회”

미국에서 온 제시카 왕 레지던트



(왼쪽부터) 제시카 왕 레지던트와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

제시카 왕 레지던트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메드스타 조지타운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우리 병원에서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제시카 왕 레지던트를 만나 우리 병원에서의 연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실>

서울아산병원으로 연수를 온 이유는

대한민국은 성형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두개안면 재건과 같은 고난도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술을 갖추고 있다. 안면 재건과 미용 수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을 보고 배우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이곳을 택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미국 메드스타 조지타운 대학병원의 교수진 역시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내게 좋은 연수 경험이 될 것이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연수 소감은

말 그대로 두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일하던 병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복잡한 두경부 재건과 안면 미용 사례 등을 볼 수 있었다. 환자 수 또한 많아서 여러 건의 수술을 시행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새로운 케이스를 접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형외과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를 받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지도교수인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가운데)를 비롯한 의료진과 함께 기념촬영. 왼쪽 두 번째가 제시카 왕 레지던트.

인상깊었던 점은

미국 메드스타 조지타운 대학병원 역시 서울아산병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건의 미세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시행하는 미세수술은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환자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서울아산병원의 경쟁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함께 일하는 모든 교수님들이 뛰어난 기술과 임상 능력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와 훌륭한 인성까지 갖추고 있어 배울 점이 많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남편,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곳곳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부산이 기억에 남는다. 한국 음식 중에서는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가장 즐겨 먹는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편한 점은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에 익숙하고 외국인에 대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딱 한 가지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이다.(웃음) 플라스틱, 유리, 비닐 등을 모두 따로따로 분류해서 버리는 것이 익숙지 않아 어려웠다. 한국,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시간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한복을 입고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



제시카 왕 레지던트(왼쪽 첫 번째)가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과 치료를 위해 방문한 해외환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삶의 질 높여 주는 가임력 보존



산부인과 김주희 임상전임강사



가임력 보존이란 미래에 자녀를 갖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난자, 정자 또는 난소조직을 동결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주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난소의 혹, 자궁내막증 등 양성질환으로도 가임력 보존의 대상이 확장됐다. 또한 가임기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그리고 미성년도 가임력 보존이 가능하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가임력 보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임력 보존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들

최근 젊은 암환자들의 치료 후 삶의 질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면서 가임력 보존은 암치료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됐다.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암종은 유방암, 혈액암, 부인암, 육종암, 대장직장암, 고환암 등 생식세포 독성 항암화학요법과 골반부위 방사선요법이 필요한 질환이다. 이러한 치료는 생식기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생식력 감소를 일으키거나 영구적으로 난자나 정자의 생성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여성의 경우, 40세 이전에 이미 난소기능이 소실되는 조기난소부전, 즉 조기폐경이 우려될 경우나 자가면역질환, 난소 혹 수술 등으로 난소기능 손상 위험이 있을 때 가임력 보존을 고려할 수 있다. 흔히 난소혹절제술은 흑만 살짝 떼 내는 수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난소혹은 골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골 껍질이 정상 난소, 과육이 혹이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혹을 제거하기 위해선 정상 난소 표면의 일부 절개를 통해 내부의 혹을 노출시켜야 하므로 정상 난소가 일정 부분 손상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수술로 인해 난소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술 전 난자를 채취해 난자, 배아동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준치료인 동결 보존법

가임력 보존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여성의 경우 난자나 배아를 동결하는 방법이 있다. 난포자극호르몬을 투여해 과배란을 유도한 뒤 다수의 난자를 채취해 동결시키거나, 난자와 정자를 수정해 배아를 동결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기술적으로 잘 확립된 방법이며 청소년에서도 가임력 보존을 위한 표준치료로 간주된다. 과배란 주사약물을 10~12일간 매일 투약하고 마지막 주사 후 34~36시간 뒤에 난자채취를 할 수 있으며, 약 2주의 꽤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가임력 보존을 미리 시행함으로써 치료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난소조직동결이다. 난소조직을 채취해 동결 보존했다가 암 치료 종료 후 복강 내로 이식한다. 난자와 배아동결이 불가능하거나 환자가 미성년일 때 시행할 수 있다. 최근 난소조직동결은 더 이상 실험적인 방법이 아닌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인 출산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남성의 경우는 정자를 동결한다. 혈액암, 고환암, 대장직장암 등으로 항암화학요법이나 골반부위 방사선요법, 고환절제술을 하게 되면 정자 기능 감소, 무정자증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치료 전 정자를 채취하여 동결해 두고, 추후 배우자와의 체외수정술 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남자 환자에서도 시행 가능하다.

동결 보존법 외 다양한 치료법

동결 보존법 외에 약제를 투여해 보존하는 방법도 있다.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작용제(gonadotroph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a)는 항암화학요법 시 난소보호를 목적으로 투여한다. 가임력 보존뿐 아니라 조기난소부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며 혈액암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로 비정상 자궁 출혈이 있을 시 출혈 조절을 위해 투약한다. 난소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해 항암제에 의한 난포 파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많아 난자, 배아동결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최소 항암치료 1~2주 전에 투약을 시작하고 항암 기간 중 4주 간격으로 투약한다. 그 밖에 자궁경부암 등 골반부위 방사선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난소의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난소를 치료 범위 밖으로 옮기는 난소전위술 등 다양한 가임력 보존 방법이 있다.

치료 후 삶의 질 높여주는 가임력 보존

가임력 보존은 질병 종류와 치료방법, 나이, 난소예비능, 향후 임신계획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치료 전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나에게 맞는 가임력 보존 방법을 제공받는다면 치료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병원에는 젊은유방암클리닉, 암통합진료센터와 가임력 보존 클리닉 간 연계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또한 다양한 질환들로 가임력 보존 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매일 외래 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저 말고 산부인과 진료실을 찾아주시기 바란다.

새해, 나에게 쓰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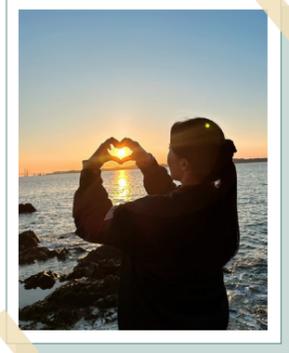
새로운 다짐과 계획으로 분주한 1월이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돌아보며 올해의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격려하다 보면 2024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직원들이 새해 소망과 계획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편집실>



나를 아끼는 2024년 보내기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

느라 눈치도 많이 보고 원하는 것도 줄곧 양보하곤 했었지. 올해는 나 자신이 1순위가 되어서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길 바라. 아주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자. 그리고 스스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올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가 어찌되든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부딪쳐 보는 용감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항상 나는 나를 응원해. 파이팅! 심장병원간호팀 이소희 대리



나만의 알고리즘을 타고 '플랜맨' 되자!

지난해에는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것 같아. 그래서 가진 시간에 비해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게 아닐까? 올해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서 효율적으로 해결해 보자.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해서 나만의 성장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거지 스마트하게 일하면서도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어. 영상학과 어유정 레지던트



극기 2024! 나를 넘어서는 한 해!

자나온 세월을 돌아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지. 어제의 나를 이겨내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점을 찍어 보자. 그래서 나만의 '극기 수행 리스트'가 꼭 채워지도록 살아보자!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매일을 새롭게 해 보자. 파이팅! 임병원간호팀 조문경 과장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야

일기는 늘 꾸준히 쓰고 있지만 감사 일기는 놓치고 있었지. 올해는 감사한 것들을 함께 적어보자. 소중한 것이라도 하루하루 감사가 쌓이면 나의 오늘이 더욱 소중한 게 느껴질 테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장민영 사원



행운이여, 내게 오라!

매달 복권을 사는 내 복권 발행 수익금이 공익사업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안 됐어도 다 의미가 있던 거겠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 왔으니 올해는 그 사랑을 돌려받는 기회가 꼭 찾아올 거야. 올해 로또 등 될 수 있다. 임병원간호팀 문다혜 주임



엄마, 봉사활동 다녀올게!

지난 연말, 봉사활동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던 초등학교 학년 딸이 물었지. "엄마는 어떤 봉사 활동을 해?"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헛헛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 올해는 분기마다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을 해봤으면 해. 딸에게 멋진 엄마가 되고 나 자신도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외과간호팀 김영현 대리



365일 건강 프로젝트 시작!

지난해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 애썼지만 의욕만 앞서다 보니 제대로 이룬 게 없어 속상했지. 올해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씩 해 보자. 체중감량을 우선순위로 하자. 맞는 옷이 없어 슬퍼하지 말고,



굵어지는 다이어트도 이제 그만. 365일 진행하는 건강 프로젝트에 돌입해 보자. 짹짹이 운동하는 IRB행정지원 유닛 선생님들을 봐. 잘못된 개미핥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잖아. AMC IRB 다이어트 대회에 동참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좋은 건강습관으로 채우고 체중은 떨어내는 한 해가 되길 바라. 10kg을 위해 으라차차 파이팅! 임상연구보환센터 유은옥 대리



나태함과 안이함을 떨쳐버려

이제 내 나이 50.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골인 지점을 향해 질주해 왔지. 이제 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지천명의 나이잖아. 새로운 출발도 좋지만 익숙한 지금의 삶에서 보이는 나태함과 안이함을 떨쳐버리는 노력을 해 보면 아닐까? 내과간호팀 최형우 선임승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한 나를 칭찬해! 하루 8시간 이상 자기, 건강식 챙겨 먹기, 주 3회 이상 출근 전 새벽 운동하기 등은 이제 습관으로 굳어졌지. 올해도 열심히 건강을 챙겼으면 해. 일단 커피를 조금 줄여야겠지? 매일 1~2잔씩 마시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 그리고 아던 책이든 좋으니 한 달에 1권씩 읽자! 경제 공부도 하고, 새로운 운동도 배워보고, 그동안 생각만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야! **외래간호팀 이은별 주임**



2024년, 졸업을 앞둔 나와 우리에게

2024년에도 병원 곳곳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울산대학교 대학원 동기들이 서로를 끌어주며 힘든 순간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졸업장을 들고 멋지게 기념촬영을 하는 2024년의 그날까지 늘 응원할게! 졸업해도 우리 우정은 영원히♥ **수술간호팀 최은혜 과장**



'새해 계획 삼형제'와 친해지기

공부, 독서, 운동. 매년 1월이면 나를 찾아오는 새해 계획 삼형제. 매년 친해지지 못하고 돌변해야 했던 형제들이지만 올해는 꼭 친해져 보자! 1월 2일부터 운동도 시작했고 책도 빌려 왔으니 이미 반은 해냈어! 시작이 좋은 2024년, 성취감과 행복으로 가득할 바라. 끝까지 화이팅! **외래간호팀 함혜원 주임**



겸손하게, 나답게, 당당하게

새로운 업무를 맡으며 출발하는 2024년 나 혼자서 아닌 병동 대표로서 더 겸손하고 당당한 내가 되어야지 항상 노력하고 발전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자. 언제나 그랬듯이 넌 할 수 있어 아자아자 파이팅! **내과간호팀 오혜정 윗 매저**



건강, 행복, 긍정이 최고!

지난해에는 유난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 원래 긍정의 아이였었는데... 올해는 흘러가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과 감사함을 느껴보자. 일상에 익숙해져서 새해 다짐을 잊고 또 다시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지만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지 말고 재점검할 수 있는 내가 되길.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중요하니까! **외래간호팀 최수정 주임**



'왜?'가 아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올해 만 30세를 맞이하는 나의 새해 다짐과 소망은 좀 더 이해심이 넓은 마음을 갖는 것! 늘 왜? Why? 특성이던 지난 30년이었지만 새해 첫날 뜨는 해를 보며 올해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구멍에 생각해 보려고 다짐하고 기도했어. "올해 서른 살인 나, 유진씨. 작년과는 뭔가 다른, 더 성숙하고 친절해진 나를 기대하며 해피 뉴이예!" **어린이병원간호팀 천유진 주임**



드디어 용띠 해가 돌아왔다!

내가 태어난 용띠의 해! 예전에는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았지만년부터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마음이 탄탄해진 것 같아. 몸과 마음 모두 튼튼한 내가 되기 위해 매일 1분 명상하기, 매주 책 1권 읽기, 매일 1시간 홈트 하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한 해를 보내보자. 파이팅이야! **진료지원팀 이기을 대리**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자!

매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대단한 다짐과 목표를 세웠지.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건 나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 19년간 연계대상을 받았던 유재석 씨가 한 말이 감명 깊었어.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엔 하면 된다. 내년엔 안 된다면 내후년에 하면 된다. 나에게겐 아직 시간이 있다. 걱정 마라는 여유 넘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아등바등 살아가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어. 다 때가 있고 항상 최선을 다하면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는 날이 올 거야. 지금 아니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태도는 버리고 현재의 나에게 더 집중하자. **내과간호팀 박유정 이장아 주임**



아빠의 열정을 불태우자!

눈에 보이지 않음 아이들이 벌써 8살, 5살이 되었는데. 벌써 큰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니... 감개무량한 마음이야. 아직도 퇴근하면 항상 "아빠 놀아줘~"하며 달려오는데 요즘 피곤하고 잡일 한다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 못한 것 같아. 나중에 애들이 커면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겠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곱씹으며 추억이 될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 **진료협력팀 장인엽 주임**

봉사 통해 사랑 전하는 자매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간호사 자매가 우리 병원에 있다는 제보가 편집실로 전달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내과간호2팀 이주은 대리**와 **심장병원간호팀 이주경 주임**. 두 사람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실>



내과간호2팀 이주은 대리(왼쪽)와 심장병원간호팀 이주경 주임 자매.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주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는 자주 요양원에 찾아가 어르신들을 돌보셨고, 보육원에 사는 아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먹이고 보약을 지어주기도 하셨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렸고, 보육원 아이들과도 친구처럼 즐겁게 놀았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이주경 학창 시절 온 가족이 함께 의료봉사를 다녔다. 우리 자매와 막냇동생까지 삼 남매가 모두 간호학과에 진학했는데, 어쩌면 의료봉사 덕분일지도 모르겠다.(웃음) 학생이었을 땐 환자들을 안내하거나 말동무가 되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 간호사가 된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이주은 입사 직전 의료봉사로 필리핀 세부의 작은 마을을 찾았다. 나는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역할이었다. 간호사로 참여하는 첫 봉사라서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현지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열악해 많이 놀랐다.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참을 고민하다 주차돼

있는 자동차를 커튼 삼아 공간을 나누고 그곳에서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았다. 어렵고 힘들었던 만큼 오래 기억에 남는다. 입사 이후에는 병동 선생님들과 병원 인근 중고등학교를 찾아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고, 오프 시간을 활용해 내원객들에게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신환 안내 봉사에도 참여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

이주경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외국인 환자 안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먼 나라에 와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주경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남매의 멘토링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에 집에 있는 새 책이나 교재를 선물해 주거나 어렸을 때 사용하던 바이올린을 가져가 가르쳐 주기도 했다. 행복해하는 남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성과 진심 어린 마음을 담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그때 처음 갖게 됐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봉사활동 계획은

이주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보육원에 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도전해보려 한다. 어릴 때의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다시 힘쓰고 싶다.

미국에서 깨달은 협업의 가치



2017년 9월부터 신경비상팀 전문간호사(NET CNS)로 일하고 있다. 5년 넘게 같은 업무를 하며 느낀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던 중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민병철 연수 기금'을 알게 됐고, 2023년 11월부터 한 달간 미국 텍사스에 있는 메모리얼 헤르만 병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외상성뇌손상, 지주막하출혈, 뇌졸중 등 중환자 관리가 필요한 최대 3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신경계중환자실(Neuro-ICU)에서 교육을 받았다. **가장 인상깊었던 건 우리 병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업'의 모습이었다.** 이곳에서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수, 펠로우, 전문간호사, 담당간호사, 약사, 영양사, 호흡기치료 전문가 등이 한 데 모인다. 각자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서로 궁금하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 토의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담당간호사가 마무리 브리핑을 하며 서로 이해한 것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한다. 그곳 의료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최적의 치료를 찾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치료가 끝난 뒤 진행되는 미팅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신경중환자 집중치료사, 전문간호사 등이 모여 환자와 보호자의 현재 상황(치료, 신체, 정서, 경제적), 퇴원 후 치료 계획,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 등을 함께 체크했다. 뇌졸중팀, 신경중환자관리팀, 신경외과팀, 호스피스팀이 함께 회진을 하며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났다.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의료진, 그리고 병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철저한 분업을 토대로 한 의료시스템도 인상적이었다. 연수를 가기 전까지는 모든 일을 잘하는 '올라운더(all-rounder)'가 되고 싶었다. 임상에서는 훌륭한 전문가,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메모리얼 헤르만 병원의 전문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환자 교육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 "전문간호사는 환자 교육을 안 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담당합니다. 투약 관련해선 약사, 식이에 대해선 영양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루고, 세분화된 역할을 해내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 내려 애쓰기보다는 팀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지는 다짐을 했다.

중환자간호팀 박보빈 대리
교육명: 민병철 연수기금 해외연수
기간: 2023년 11월 ~ 12월
장소: 미국 메모리얼 헤르만 병원

※ 우리 병원은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장 이야기'에서는 국내·외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따뜻한 간호 제공하고 싶어요”



내과간호2팀 용민영 사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53병동에서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활력징후 측정, 투약,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로서 서툰 점이 많지만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셉터 선생님은 제게 항상 “잘 하고 있다”라며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입사 직후 ‘부서체험의 날’에 153병동을 처음 방문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당시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신속하고 차분하게 응급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원 팀’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치료 과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앞으로 근무하게 될 부서에 대한 기대와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검사·시술 과정, 투약의 목적이나 필요성 등을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줄 때 보람을 느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환자에게 조혈제를 투약하면서 신장의 조혈기능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설명을 듣고 나서 “아픈 주사지만 이걸 꼭 필요한 약이겠네요. 잘 알려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치료과정에 동참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으로 환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근 후 일상 집에서 치맥을 하면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웃음)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공연과 전시 등을 보기도 해요. 입사하면서 서울로 왔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구경하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최근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러닝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목표는 ‘간호는 과학이자 예술’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와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하며 따뜻한 간호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밝은 에너지를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실 마주하고 두려움 극복하기



기획팀 홍희주 주임

뮤지컬 ‘레베카’는 화려한 무대장치와 함께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가창력, 풍부한 선율 등 깊은 감동을 주는 걸작이다. 또한 인간의 본성과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시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아내 레베카를 잃은 막심 드 윈터는 주인공인 ‘나’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막심과 ‘나’는 결혼해 드윈터 가문의 맨들리 저택으로 왔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집사 댄버스 부인과 저택의 사람들은 전 부인 레베카와 ‘나’를 비교했고 막심 역시 레베카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죽은 레베카를 영원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자괴감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막심도 아직 레베카를 잊지 못하고 있다 오해하고 서로 갈등하는 등 레베카의 그늘 속에 고통스런 날들을 보낸다.

그러나 주인공 부부는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되고, 아름답고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레베카의 추악한 본 모습도 밝혀낸다. 주인공 부부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레베카를 가장 잘 안다 자부하던 댄버스 부인은 그녀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하다 저택에 불을 지르고 생을 마감하는 상반된 결말을 맞는다.

뮤지컬 레베카는 과거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처음 주인공이 저택으로 왔을 때는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위축되고 자존감을 잃기도 했으나 결국 자신의 강점인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된다.

뮤지컬 레베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과거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살다 보면 스스로의 감정에 벽을 쌓아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릴 때가 있다. 업무 중 자신의 부족함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먼저 걱정을 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하는 중에 일어난 실수를 엄청난 사고로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이를 극복하면 오히려 더 큰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뮤지컬 레베카는 ‘나’를 통해 용기를 내고,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 협력과 응원의 중요성이다. 주인공 부부가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것처럼 주변의 격려와 지지는 큰 도움이 된다. 필자도 업무 변경이 있거나 번아웃이 올 때마다 팀원들의 응원과 격려로 힘든 시간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여러분도 ‘협업/칭찬’ 게시판판을 통해 주변의 고마운 동료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격려와 감사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 | |
|--|--------------------------------|
| | 레베카 |
| | 원작 : 대프니 듀 모리에 소설 '레베카' |
| | 연출자 : 로버트 요한슨 |
| | 관람시간 : 175분 |
| | 공연기간 : 2023.12.14 ~ 2024.02.24 |
| | 장소 : LG아트센터 서울 |

※ 병원보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컬처 & 라이프'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소개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아산병원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암 검사와 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시던 날 만난 김은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입원 당일 수술을 하러 원무팀 창구에 갔습니다. 기대와 달리 일반 병동에 자리가 없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보호자가 같이 있지 않아도 되는 건지, 미리 조정해 둔 다른 일정들에 차질이 생긴 않을지, 병원비가 너무 비싸지는 건 아닌지... 참 많은 고민과 질문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혼란스럽던 그때 김은주 선생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는데도 친절하고 목소리가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도움 될 만한 방법을 알아봐 주었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표정에서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던 김은주 선생님, 수없이 많은 고객을 상대하느라 지칠 텐데도 제게 좋은 기운을 보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의 뛰어난 의술, 따뜻하고 친절한 간호, 편안하고 쾌적한 병원 시설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 더 꼽는다면 가장 먼저 환자를 맞이하고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원무팀 직원들과의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김은주 선생님 덕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보낸 날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암 진단에 경황이 없어 보였던 보호자 분. 의료진과 직원들의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죠. 보호자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차분하게 안내하려 노력했는데 그런 제 마음이 보호자 분에게 잘 전달될 듯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나 보호자라면 누구나 원무팀 창구를 거쳐 갑니다. 수없이 많은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항상 밝고 친절하게 응대하려 노력하는 동료들을 보며 다시 힘을 냅니다. 혼자 하는 일 아니기에, 환자 접점에서 함께 고생하는 원무팀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 원무팀 김은주 대리

※ '감사우체통'은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병원보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 | | |
|---|---|---|
| <p>아카데미운영팀 권경희 선임기능</p> <p>‘중증질환 유튜브 콘텐츠 ‘하루’ 호응’ 기사를 읽고 유튜브에서 ‘하루; 병원에 사는 사람들’ 콘텐츠를 찾아 시청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24시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배려, 그리고 사랑을 갖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p> | <p>외과간호2팀 김진성 사원</p> <p>‘병원과 나’ 코너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차장님과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환자를 돌보는데 매우 열정적이고 후배 간호사들을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멋진 선배님입니다. 저도 차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아는 만큼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환자를 돌보겠습니다.</p> | <p>영상의학팀 윤희석 주임</p> <p>‘마이펫’ 코너를 통해 직원들의 반려동물과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끔 집밖에서 산책하는 반려동물을 보면 눈길이 가는데 이 코너를 읽을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가 마지막이라니 아쉽네요. 새로운 코너도 기대하겠습니다.</p> |
| <p>임상시험센터 황애경 대리</p> <p>‘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코너에 소개된 꽃사모는 매년 갤러리에서 꽃꽂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눈과 마음 모두 정화되는 듯한 기분입니다. 꽃사모 외에도 우리 병원에는 여러 동호회가 있습니다. 즐거운 병원생활을 원하는 직원이라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p>심장검사팀 한윤아 선임기능</p> <p>‘감사우체통’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헌신적인 교수님, 배려심 많은 간호사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한다는 점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분을 본받아 저도 환자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 <p>수술간호팀 이영찬 주임</p> <p>‘사서’s PICK- 나에게 건네는 다정’ 코너를 읽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 자신을 향한 ‘다정함’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나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더 쉽게 사랑할 수 있다’는 글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번 호를 끝으로 코너가 마무리된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사서’s PICK’ 덕분에 책에 흥미를 갖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p> |